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 수익률 -28%

2006년 이후 지난해말까지 문화계정 출자금 5551억원
“청산된 자펀드의 수익률도 마이너스 원금도 못찾아”

문화부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자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평가액이 지난해 말 기준 -27.56%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새 17%p 떨어진 수치다. 수익률이 확정된 청산펀드의 수익률도 -3.82%에 불과했다. 문화부가 2006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한 금액은 5551억원에 달한다.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모태펀드 조성 목적이 수익률 제고는 아니지만, 정책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손실을 거듭하는 지금의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79개 자펀드에 출자를 했다.

김영주 의원은 “모태펀드의 설립 목적이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지만, 자체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업의 신생기업 또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데에 있다면, 운영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면서 “그동안 문화계정에서 청산된 자펀드의 누적수익률(IRR)도 -3.82%에 불과하고, 수익배수(원금대비수익배수)도 0.83배에 불과해 손실을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 또는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부가 매년 수백억 원을 출자하고 있는데, 정책효과나 목표달성은 불투명 한 채 손실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용사들은 매년 110억원 이 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면서 “모태펀드의 조성 목적이 수익률 제고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고 운용상 수익률을 개선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문화재의 문턱은 낮게 국민의 행복은 크게’

정읍 무성서원 · 황토현전적 · 김명관 고택, 문화재활용 공모사업 선정

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는 ‘문화재의 문턱은 낮게 국민의 행복은 크게’라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 전략에 맞춰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을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기존의 단순한 보존과 관람이라는 수동적 문화재 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 창출을 위해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노력해온 시와 시민들의 성과이다. 2019년도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상문화재는 3개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사적 제166호 무성서원과 동학농민혁명때 농민군이 관군을 상대로 최초의 대승을 거두었던 사적 제295호 황토현전적, 그리고 1784년 건립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상류주택으로 일명 아흔아홉간집으로 널리 알려진 국가민속문화재 김명관 고택 등이다. 시에서는 선정된 3개 문화재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무성서원에서는 ‘최치원의 사상과 험가투의 풍류를 찾아서’를 주제로 무성서원에서 모시고 있는 최치원 선생을 비롯한 7분의 선현을 향사하는 제례행사를 거행하며 다양한 내용으로 참여 희망자를 단체 또는 개인별로 접수받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황토현전적은 ‘다시 피는 녹두꽃’이라는 주제로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따라 농민군이 남긴 정신을 되새겨 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명관 고택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김명관 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고택한옥문화 체험’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옥에 대한 명칭 · 구조 · 풍수 · 건축 · 조경 등을 스토리를 엮어 이야기 하고 한옥 모형 만들기 체험과 한옥에 대한 토론을 희망자 접수를 받아 1

박2일 일정으로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당일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김명관 고택에서 한옥을 체험하면서 풍수 · 건축 · 조경 등을 직접 접해보고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실시 될 예정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었거나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 문화재의 색다른 체험과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프로그램으로 우리지역의 문화재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명관 고택의 ‘고택한옥문화 체험’

전주대 JJ 윈드 앙상블, ‘가을축제음악회’ 무대 올라

13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서

전주대학교 음악학과 JJ 윈드 앙상블이 오는 13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에서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보인다. JJ Wind Ensemble(JJ 윈드 앙상블)은 전주대 감대욱 교수가 지휘하고 관악 전공 최승훈 학생 등 30명이 연주하는 전주대 소속 관악 연주단으로, 한국음악대학 관악협회가 주최하는 ‘2018 가을축제음악회’ 무대에 오르게 됐다. 이번 연주회는 전주대 외에도 연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경희대, 숭실대, 국민대 등 관악 명문 대학이 참여하여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에 열린 한국음악대학 관악협회 전국 관악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학생들도 협연자로 함께 참여한다. 전주대 음악학과 김대욱 교수는 “음악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합심하여 가을의 서정적인 분위기와 어울리는 수준 높은 관악 연주를 준비했다”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서 음악학과



학생들이 한 층 더 성숙하고 실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국문과 연극동아리 ‘몸짓’ 31번째 공연

내일 학술문화관서 대학로 등 인기 끈 ‘미라클’ 무대에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연극 동아리 ‘몸짓’이 내일 오후 7시 전북대 학술문화관에서 31번째 정기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작품은 서울 대학로 등에서 큰 인기를 끈 ‘미라클’이라는 작품으로 2016년 ‘택시드라이브’와 2017년 ‘버스를 놓치다’ 등에 이룬 리메이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작품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99.9%의 절망과 0.1%의 희망 속에 발견하는 작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학생들의 시각과 몸짓으로 새롭게 담아낸다. 유명 아이돌 그룹 하도그의 멤버 ‘희봉’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 6개월 동안 홀로 몸을 지킨다. 다른 사람에게 모습이 보이지도, 목소리가 들리지도, 물건을 만질 수 없다. 그의 앞에 나타난 신비한 열방 환자 ‘두리’의 존재는 이러한 ‘희봉’에게 그야말로 기적이다. 희봉은 두리의 신비한 능력을 통해 짝사랑하던 간호사에게 마음을 전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